

化工同門

| 발행일 | 2010년 겨울 | 발행처 | 부산대학교 화학공학과 동문회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산30번지 부산대학교 화학공학과 T.510-1431 | 통권 | 제14호

| 동문회장 인사 |

선진사회를 위한 참여와 봉사

우리나라는 개인소득 3만불 소득의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고자 애를 쓰고 있으나 수년간 진입의 문턱에서 주춤하고 있는 이유가 반드시 세계경제 정세나 외부요인 등으로 탓하기보다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여지가 다분히 있었음을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개인소득 뿐만 아니라 문화와 사회, 공공질서, 안전과 재해예방 등 제반 여건이 더불어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아울러 각자가 속해있는 단체와 사회에 여러 가지 형태의 공헌과 봉사를 통하여 비록 적으나마 이바지하는 사례를 선진국에서 자주 그 소식을 접하게 된다. 길거리에서 휴지를 버리거나, 각종 축제, 대회장에서 고성능 확성기 소음발생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IT강국이라 자랑하는 우리나라는 한편 악플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데도 사고가 생길 때마다 한때 떠들다 말고 소수의 반대 목소리에 밀려 체계적인 피해예방 대책을 수립할 행정, 입법 차원의 조치는 없다. 지하철에서 휴대폰 통화를 큰소리로 오래하는 사람이 왜 옆에서 쳐다보는지도 모르고 안방통화같이 떠들어대니 이것은 IT강국의 부끄러움이 아니겠는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자유민주주의는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상대방을 배려하고 피해를 끼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나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일부에 불과하지만 선진사회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말끔히 정리, 청산되어야 진정한 세계 선진대열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위해 근년에 사라진 메스컴을 통한 사회 계몽도 유관 기관에서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시야를 내부로 돌려 우리 화공동문회를 한번 점검 해 보자. 수많은 인재를 배출하여 우리나라 화학공업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으며, 단일 학과 동문회 중에서 운영의 모범이 되고 있다. 더욱이 전체 선,후배 동문들의 기부와 열성으로 형성된 장학제도 또한 타 학과 동문회에 자랑할 자부심 거리이다. 그런데, 근년 후배 동문들의 관심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뜻있으신 다수 동문 선배님들의 걱정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 이는 시대의 흐름이라든가 부산의 산업형태 변화와 과거 전공학과명 변경 등 몇 가지 원인이 있으나 그러하더라도 과거 어려운 여건에서 오늘의 훌륭한 기반을 쌓은 선배님들의 수고에 부응하려면 각 회원의 적은 노력을 더해야 하지 않을까?

특히 장차 동문회를 이끌어 갈 젊은 후배들은 우선 관심과 참여가 동문회라는 공동체를 위한 봉사이며 선진사회로 가기위한 또 하나의 공헌임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동문회장
김 순 봉

동문회장
김 순 봉

부산대학교 화학공학과 동문 여러분께



부산대학교 화공생명공학부 학부장
이 선 구

존경하는 부산대학교 화학공학과 동문 여러분! 이렇게 동문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는 지면을 할애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본 학과의 현재와 미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부산대학교 화학공학과(현 화공생명공학부)는 탁월한 능력의 엔지니어를 양성, 배출하면서 우리나라의 국력 신장에 크게 기여하여 왔으며, 이러한 성취는 사회 각 분야에서 공헌해 주시고 빛나는 업적을 내 주신 동문 여러분이 있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동문 여러분들이 본 학과 학생들에게 지원해 주시는 장학금은 학과 학생들의 자부심을 크게 높여줄 뿐 만아니라 학업을 수행하는데 크게 격려가 되고 있으며, 학과로의 각종 지원금은 학과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본 학과는 현재 화학공학, 나노공학, 에너지공학, 생명공학분야의 교육과 연구를 동시에 연마할 수 있으며 현대 교육, 연구, 산업의 화두인 ‘융합’에 가장 알맞은 유일한 학과로 그 독자적인 위치를 확보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대형 국책 사업인 두뇌한국 21 (BK21) 사업에 선정된 후 화학공학 및 생명공학분야의 우수한 고급 연구 인력을 양성 배출하고 있으며, 부산대학교의 3개 핵심 특성화 학과 중 하나로 선정되어 에너지 분야의 Global Leader를 양성시키는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에는 분야를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세계적 연구 중심학과로 도약하기 위해 “화공생명공학부”로 거듭난 한 해였습니다. 부디 저희 학과가 세계적인 일류 학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동문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부산대학교 화공생명공학부 학부장
이 선 구

동문회소식

① 2009년도 부산대학교 화학공학과 동문회 정기총회

- 일 시 : 2009년 12월 10일
- 장 소 : 허심청 “크리스탈”
- 신임 회장단 선출
 - 회 장: 김 순 봉 동문 (68학번)
 - 수석부회장: 양 경 석 동문 (69학번)
 - 수석 총무: 박 영 원 동문 (75학번)



② 신·구 회장단 업무 인수인계 회의

- 일 시 : 2009년 12월 29일
- 장 소 : 온천장 대성회초밥

③ 박상욱 교수(64학번) 퇴임식

- 일 시 : 2010년 1월 16일
- 장 소 : 웨스틴조선호텔
- 김순봉 회장 외 참석

④ 송승구 교수(64학번) 퇴임식

- 일 시 : 2010년 1월 30일
- 장 소 : 롯데호텔
- 김순봉 회장 외 참석

⑤ 남구청장(64학번, 이종철 동문) 예방

- 일 시 : 2010년 2월 9일
- 김순봉 회장, 박영원 총무 참석

⑥ 박태주 동문(69학번, 부산대학교 환경공학과) 대한환경공학회 회장 선출

⑦ 2010학년도 1기 우수장학생 장학금 수여식 (고. 정경영 동문(56) 설립)

- 일 시 : 2010년 2월 24일
- 장 소 : 여수 폴리플러스
- 장학금 수혜자 : 김창민(이상 4학년),
원승주, 임성현(이상 3학년)
- 학과 교수 김원호 교수, 이선구 교수 참석

⑧ 고문단 좌담회

- 일 시 : 2010년 3월 6일
- 장 소 : 남천동 대어초밥

⑨ 박경기 동문(61학번, 하이테크칼라) 모교강의

- 일 시 : 2010학년도 1학기
- 모교 4학년 공장설계 강의

⑩ 양경석 동문(69학번, EFT) 부산대학교 총동문회 상임부회장 선임

⑪ 재울동문회 방문

- 일 시 : 2010년 3월 31일
- 김순봉 회장, 양경석 총동문회 부회장,
박영원 총무 참석

동문회소식

⑫ 2010년도 1/4분기 회장단 회의

- 일 시 : 2010년 4월 8일
- 장 소 : 온천장 중식당 금문
- 의결사항 : 2010년 사업계획, 2010년 예산안 토의



⑫ 화학공학과 80년대 학번 모임

- 일 시 : 2010년 8월 26일
- 장 소 : 고구려
- 김순봉 회장 외 7명 참석

⑬ 2010학년도 2기 우송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고. 정경영 동문(56)설립)

- 일 시 : 2010년 8월 31일
- 장 소 : 여수 폴리플러스
- 장학금 수혜자
: 전성하 (이상 2학년), 조성호, 문새롬 (이상 4학년)

⑭ 2010년도 3/4분기 회장단 회의

- 일 시 : 2010년 9월 2일
- 등반장소 : 온천장 중식당 금문

⑮ 2010년 화학공학과 재학생 및 동문등반대회

- 일 시 : 2010년 5월 1일
- 등반장소 : 금정산성 동문

⑯ 부산대학교 총동문회 이사회

- 일 시 : 2010년 7월 29일
- 장 소 : 상남국제회관



⑰ 부산대학교 공과대학 동문회 회장단 회의

- 일 시 : 2010년 8월 18일
- 장 소 : 어가
- 유동대 공대동문회장 외 다수 참석

⑱ 부산대학교 공과대학 총동문회 등반대회

- 일 시 : 2010년 10월 24일
- 등반장소 : 금정산성
- 우천으로 각 학과별로 등반

장학회소식

① 제35회 재단법인 문창화공장학회 및 문교장학생 2010년 1기 장학금수여식

- 일 시 : 2010년 3월 5일
- 장 소 : 상남국제회관
- 기명기탁제 장학금 기부자
박경기(61), 최의영(63), 강석근(66), 박현병(66),
양경석(69), 이중희(71) 동문
- 장학금 수혜자

문창화공장학회		문교장학생	
학년	성 명	학년	성 명
3	신영민	3	봉수현
3	김준태		
4	김세미	4	김선호
4	최현수		



② 제36회 재단법인 문창화공장학회 및 문교장학생 2010년 2기 장학금수여식

- 일 시 : 2010년 8월 26일
- 장 소 : 상남국제회관
- 기명기탁제 장학금 기부(200만원/년)
박경기(61), 최의영(63), 강석근(66), 박현병(66),
양경석(69), 이중희(71) 동문
- 장학금 수혜자

문창화공장학회			문교장학생	
학년	성 명	기부자	학년	성 명
2	김수진	장학회	3	봉수현
2	허보경	이중희		
2	손기벽	박현병		
3	신영민	박경기	4	김선호
3	김준태	양경석		
4	김세미	최의영		
4	최현수	강석근		



학과소식

① 2010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 일 시 : 2010년 2월 19일
- 학사과정 : 50명(남 25명, 여 25명)
- 석사과정 : 7명(남 4명, 여 3명)
- 박사과정 : 1명(남 1명)



② 2010학년도 입학식

- 일 시 : 2010년 3월 2일
- 화공생명공학부 신입생 58명



③ 화공생명공학부 신입교수 신규 교수 임용

- 일 시 : 2010년 3월 1일

④ 대학 특성화 분야 전략특화 부문에서 핵심특화로 승격

- 분 야 : 환경 및 신재생 에너지 분야
- 연간 2억원 지원

⑤ 화공생명공학부 박성훈 교수 제20회 과학기술 우수논문상 수상

- 일 시 : 2010년 5월 24일

▼ 국제신문 기사 발췌

한국과학기술단체
총 연합회가 한 해 가
장 우수한 논문을 선정
해 시상하는 과학기술
우수논문상에 부산대
학교 교수 4명이 선정
됐다.



제20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 부산대 수상자
는 박성훈(화공생명공학부), 김광호(재료공학
부), 조성희(주거환경학과), 김유근(대기환경과
학과) 교수다.

이 상은 국내 과학기술과 관련된 320여개 학
회로부터 추천된 최우수 논문 중 우수 논문을
선정해 1991년부터 매년 수상하고 있다.

1차 심사를 통해 추천된 논문은 분야별심사
와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182편이 선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7월 6일 대구 호텔인터불고
엑스코에서 개최되는 '2010 대한민국과학기
술연차대회' 때 마련될 예정이다.

학과소식

⑥ 화공생명공학부 박대원 교수, 박성훈 교수
2010년 한국공업화학회 춘계 연구논문 발표회
공로상 수상

⑩ 화공생명공학부 박대원 교수 한국화학공학회
학술상 수상

● 일 시 : 2010년 10월 21일

⑦ 2010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 일 시 : 2010년 8월 20일
- 학사과정 : 8명(남 6명, 여 2명)
- 석사과정 : 5명(남 3명, 여 2명)
- 박사과정 : 1명(남 1명)



⑧ 화공생명공학부 박대원 교수
부산대학교 2010년 베스트리서처로 선정

- 일 시 : 2010년 9월 9일
- ▶ 국제신문 기사 발췌

⑨ 제21회 화학공학 (이동현상) 학력경시대회
(주최: 한국화학공학회) 장려상 수상

- 일 시 : 2010년 10월 2일
- 장 소 : 홍익대학교
- 수 상 자 : 김영석(장려상, 학부 4학년)

부산대학교는 최근 3
년간 가장 우수한 연구
실적을 낸 교수에게 주
는 ‘베스트 리서처
(Best Researcher)’
올해 수상자로 공과대



학 화공생명공학부 박대원 교수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박 교수에게는 이날 트로피와
2000만원의 성과급이 전달됐다.

박 교수는 최근 3년간 국제적 학술논문 78편
(SCI급 논문 65편, 학진등재지 논문 6편, 기타
국제논문 7편)을 주저자 또는 공동저자로 발표
하고 3건의 특허를 등록하는 등 왕성한 활동으
로 뛰어난 연구역량을 발휘해 왔다.

1987년 3월 부산대 교수로 임용된 박 교수는
활발한 국내외 연구 및 학술활동을 통해 이산
화탄소와 황화수소의 전환 기술 개발 등 촉매
연구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한국화학공학회 학술지인 ‘Korean
Chemical Engineering Research’ 편집위
원, 촉매부문위원회 위원장, 한국공업화학회의
지부장 및 촉매부문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학과소식

⑪ 2010년 화학공학 대학생 FUN&FUN한마당 경진대회 (주최:한국화학공학회)

- 일 시 : 2010년 10월 22일
- 장 소 : 대전 컨벤션센터
- 수 상 자

수상내역	성명	작품명
은 상	최정우, 김재삼, 송주연, 조혜지, 국윤원, 김수진, 정화섭, 이나영	바나나 화이바
동 상	박현희, 전봉진, 김향숙, 홍진영, 박수정	루저의 변명
장려상	박준현, 김희정, 황예슬, 박민종, 채명주, 전성하, 김유나, 한동균	사람을 사랑하게 된 집진기
장려상	배정환, 한재진, 유용식, 송형용, 이예지, 김지은, 박성희	잡초잡는 잡초

⑫ 학부3학년 산업시찰

- 일 시 : 2010년 11월 5일
- 장 소 : 울산SK에너지
- 학부 3학년 60명 및 학과교수 3명 참석

⑬ 2010년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입상

- 수 상 자 : 황예슬, 신영민, 박민종

⑭ 증류탑동 리모델링 착공

- 공사기간 : 2010년 11월 ~ 2011년 2월
- 공사기금 : 남기용동문(59학번) 1억원,
학과교수 3천만원 기부

⑮ 화공생명공학부 박대원 교수, 2010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수성과 선정

- 연 구 명 : 고정화된 특수기능 이온성액체촉매의
개발
- 우수성과 전시 : 서울과총회관 12월 20일~23일
해회역사내전시관 12월 27일~30일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시스템
통하여 홍보



일산실업을 다녀와서

화학공학 · 생명공학 전공 4학년 옥 진 성



4학년 공장설계의 수업의 일환으로 공장견학을 가게 되었다.

일산실업이라는 회사를 가게 되었는데 이 회사는 곡물로부터 알코올을 생산해 우리나라의 알코올이 필요한 여러 회사로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다. 여기에 있는 에탄올이 우리가 주로 마시는 소주나 여러 부분에 사용된다는 소리를 듣고 회사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클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회사에 도착해 회사의 설명을 듣기 위해 들어간 자리에서 직원분이 말씀해주셔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우리가 총 50명 정도가 이 회사를 방문하였는데 우리의 총 인원보다 회사의 인원이 더 작다고 하였다. 정말 소수의

인원으로 큰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첫 번째 우리가 회사 내에서 가보았던 곳은 쉽게 말하면 모든 공정에서 거쳐 나온 폐기물을 처리하는 곳이었는데 우리학교 환경과를 나오신 분께서 그곳에서 근무하신다고 하였다. 폐기물을 처리하는 곳이라 매우 더러울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막상가보니 생각했던 것보다는 깨끗하였다.

두 번째로 가보았던 곳은 이 회사의 첫 번째 공정으로 속하는 원자재 창고였는데 우리가 들어갔을 때도 한 트럭으로 들어온 곡물이 차에서 내려져 하나씩하나씩 쌓여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의 바로 눈앞에는 우리의 키보다 훨씬 큰 말린 고구마가 산처럼 쌓여있었

다. 처음엔 원료인줄 모르고 살짝 밟고 있었다. 고구마를 말려놓았더니 고구마처럼 생기지 않았다. 이 원료들은 다 수입해온 것이라고 했다. 국산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아마 그것은 가격의 문제 때문에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그러곤 다음 공정은 이 많은 원료를 가지고 처리하는 곳인 증류탑이었다. 그곳에는 엄청나게 큰 증류탑이 즐비해있었다. 증류탑 주위에 올라가니 매우 뜨거웠다. 그 날은 그리 더운 날도 아니었는데 증류탑 주위만 돌아다녔을 뿐인데도 숨이 막힐 정도로 더웠다. 더운 여름날엔 얼마나 일하기 힘들지에 대해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증류탑 바로 옆에 보니 컴퓨터로 이 모든 공정을 제어하는 장소가 있었는데 단지 몇 개의 스위치로만 간단히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직접 손을 가지고 처리해줘야 하는 것이 많은 것 같았다. 저희를 데리고 다니시는 분도 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옆에 전문가 분께 물

어봐야 될 정도로 복잡한 것 같았다.

바로 옆에는 실험실 같은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알코올 도수를 측정하는 곳이라고 했다. 나는 냄새로만 맡아보아도 매우 강력한 도수의 알코올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알코올을 필요로 하는 회사가 들고 가서 그 회사에서 필요한 것을 넣어 필요한 부분에 사용한다고 하였다. 우리가 시중에 마시는 술은 이러한 알코올이 여러번 공정 처리된 것이라는 것을 느꼈다.

모든 공장을 다 보고 나오는 길에 화학공학자들이 정말 힘든 환경에서 일을 하구나 하고 느꼈다. 그리고 이런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이런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회사를 나오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

수업으로만 공장설계에 대해 듣는 것보다는 직접 경험을 하게 해준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이런 기회를 주신 회사 관계자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SK에너지 공장견학을 다녀와서

화학공학 · 생명공학 전공 3학년 노 은 수

우리 과는 3학년 2학기에 화학공학과 관련된 공장으로 견학 가는 행사가 있다. 나는 창원에서 살았기 때문에 화학공장은 실제로 본적이 없는데 내가 졸업하고 갈 수 있는 분야 중 하나인 석유화학분야의 공장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SK에너지는 세계 최대 규모의 설비 시설을 가지고 있는 울산의 주요 기업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정유회사로써 대한민국의 에너지 산업을 선도해 온 우리나라 석유화학 분야의 큰 축을 이루는 기업이다. 울산으로 진입하여 어느 정도 들어갔을 때 창원 기계공단 같은 울산 석유화학공단이 SK에너지 뒤로 보였다.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기름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났다. 군대있을 때 맡아보고 3년 만에 다시 맡는 냄새다 보니 처음에는 조금 느낌이 이상했지만 빨리 적응됐다. SK에너지 공장에 들어가서 차로 이동하는 동안 과연 2800여명의 직원으로 전부 통제가 될지 의심될 만큼 큰 규모에 상당히 놀랐었다. 본관에 모두 내려서 홍보부에 계신분의 안내를 받아 홍보실에 가서 우리 과 선배님들의 SK에너지 내에서 영향력, SK에너지의

역사 및 미래에 대한 설명 및 영화를 보고 실제 공장의 모형으로 공장전체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세계 최대 설비 시설을 가진 공장답게 매우 작에 축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커서 카메라에 전체 구조가 다 들어오지 않아서 찍을 수가 없었다. 모형을 보면서 SK에너지에서 생산, 연구 및 재활용하는 공정들을 우리가 수업시간에 각각 배우는 여러 가지 공정들을 간접적으로나마 한데 묶어서 느낄 수 있었고 효율적인 생산을 위해 역학적 관점에서 Tank를 배치한 모습이 신기했다.

본관을 나와 버스를 타고 공장을 돌며 가이드 분이 공장설비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구조가 너무 커서 파이프밖에 보이지 않아 우리가 수업시간에 배우고 있는 여러 공정설비 등을 실제로 보고 체험하는데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 과에서 졸업해서 하게 될 일들의 중요성 등을 좀 더 현실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화학공학도로서의 자부심과 내 미래에 대한 보다 나은 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다.



문창화공장학회 기금 모금 및 지급현황

재단법인 설립당시 2억원의 기본재산으로 시작하여 약 3억여 원을 추가 모금하여 현재 5억여원의 장학기금이 조성되었다. 현재 남기용 이사장을 비롯한 여러 동문이 뜻을 모아 일정기금을 약정하여 향후 10억원을 목표로 기금 모금 사업을 펼치고 있다. 또한 2005년부터 “기명기탁제 학비지원 장학금”이라 하여 장학금 기탁자와 수혜자를 서로 연결하여 학업증진을 독려하고 화공산업현황 등의 의견을 개별적으로 교류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러한 교류를 통해 선후배의 관계를 돈독하게 함으로써 개인의 발전은 물론 학과의 발전 또한 도모하고 있다.

장학금 지급은 1993년부터 시작하여 재단설립이전에 6천 4백여만 원, 설립 이후 1억 4천4백만원을 지급

하였다. 또한 2004년부터 시작된 문교장학금은 현재 2천 8백만원, 1995년부터 시작된 우송장학회는 6천 3백여만 원에 이른다.

구분	시작년도	지급총액	비고
동문회 장학회	1993	63,800,000	
문창화공장학회	2002	144,000,000	2001년 10월 설립
문교장학생	2004	28,000,000	
우송장학회	1995	62,800,000	
합 계		298,600,000	

장학기금 조성내역

기간: 1989년-2010년 11월 16일 현재

1. 개별장학금 조성내역

학 번	성 명	금 액
59	남기용	139,100,000
56	정경영	45,000,000
59	김동욱	22,400,000
59	구의남	22,100,000
66	박현병	16,200,000
61	박경기	14,500,000
54	신정호	11,300,000
66	강석근	11,300,000
57	박영근	11,000,000
57	최한윤	11,000,000
56	박판욱	10,100,000
69	임영환	10,000,000

학 번	성 명	금 액
86	안창덕	10,000,000
63	최의영	9,550,000
64	정동진	9,000,000
71	이중희	9,000,000
69	양경석	5,500,000
60	이백운	5,000,000
61	최은석	3,100,000
58	길옥균	3,000,000
58	김운식	3,000,000
60	김승정	2,900,000
83	이준호	2,550,000
60	허수일	2,500,000

학 번	성 명	금 액
59	허경도	2,300,000
64	송승구	2,100,000
56	문창해	2,000,000
64	천두갑	2,000,000
69	정순구	2,000,000
60	조성기	1,900,000
60	정순각	1,800,000
63	정의우	1,500,000
64	최명호	1,500,000
61	김재성	1,400,000
61	성평건	1,200,000
61	임무성	1,200,000
59	장정효	1,150,000
60	서민석	1,100,000
63	김기환	1,050,000
55	권석현	1,000,000
56	박성호	1,000,000
57	김갑재	1,000,000
57	성재갑	1,000,000
58	백용기	1,000,000
58	이병민	1,000,000
61	박성철	1,000,000
61	송진현	1,000,000
61	최인승	1,000,000
63	이건웅	1,000,000
64	이성희	1,000,000
학과교수	서길덕	1,000,000
69	박태주	800,000
64	전시중	750,000
65	정원찬	700,000
63	정두호	650,000
74	황규석	600,000
57	김홍관	580,000
62	박효가	580,000
58	이성호	550,000
66	김영우	550,000
57	안종관	500,000

학 번	성 명	금 액
57	장영남	500,000
58	홍종갑	500,000
60	박동명	500,000
60	황방태	500,000
61	문규열	500,000
61	유해준	500,000
64	강선원	500,000
64	박상욱	500,000
67	엄현섭	500,000
68	공영건	500,000
70	김해송	500,000
72	문대인	500,000
학과교수	이선구	500,000
61	이재환	400,000
64	이정웅	400,000
65	허병도	400,000
학과교수	박성훈	400,000
60	이종대	360,000
57	김정원	350,000
61	이용수	350,000
54	김정곤	300,000
54	신영조	300,000
57	노환생	300,000
57	이유만	300,000
58	우병이	300,000
59	정대식	300,000
60	김순덕	300,000
60	박태준	300,000
60	신성철	300,000
60	오경희	300,000
60	윤수상	300,000
60	이동만	300,000
61	권인렬	300,000
61	박상효	300,000
61	유기진	300,000
61	이은우	300,000
61	허 열	300,000

학 번	성 명	금 액
75	김원호	300,000
70	박상국	230,000
76	김인실	210,000
57	강무공	200,000
57	이재희	200,000
60	전영철	200,000
60	하대호	200,000
60	한홍일	200,000
60	황오수	200,000
61	김성현	200,000
61	문기주	200,000
61	오정근	200,000
61	정상수	200,000
61	최문주	200,000
62	한우길	200,000
64	박영근	200,000
64	박홍수	200,000
64	윤한수	200,000
65	최선진	200,000
67	박성흠	200,000
57	오태훈	150,000
61	문상두	150,000
61	이은식	150,000
63	최봉림	150,000
71	박문평	150,000
75	노근식	150,000
69	박건준	130,000
73	이학성	130,000
62	조태호	110,000
68	김영대	110,000
55	김동윤	100,000
55	원용돈	100,000
56	김성문	100,000
57	박응중	100,000
57	서병인	100,000
57	이인우	100,000
57	장태진	100,000

학 번	성 명	금 액
57	정종무	100,000
57	최문갑	100,000
58	김 양	100,000
60	박동식	100,000
60	박용규	100,000
60	신길성	100,000
60	한성환	100,000
61	배주호	100,000
63	오문길	100,000
65	김병욱	100,000
65	김치홍	100,000
65	변기수	100,000
65	성대윤	100,000
65	이황균	100,000
65	정대용	100,000
65	정복만	100,000
65	조용암	100,000
66	김종현	100,000
66	황일승	100,000
67	서근학	100,000
68	이무원	100,000
70	황영기	100,000
71	심재홍	100,000
71	김경식	100,000
72	이종식	100,000
72	주창식	100,000
72	모태수	100,000
73	임균택	100,000
74	김성수	100,000
74	류용구	100,000
74	하창식	100,000
75	금시환	100,000
75	김영찬	100,000
75	최낙만	100,000
75	황두범	100,000
78	정갑섭	100,000
79	박현균	100,000

학 번	성 명	금 액
학과교수	김부웅	100,000
학과교수	박대원	100,000
55	신일성	80,000
68	윤병철	80,000
69	장병화	80,000
81	최정근	80,000
82	전호철	80,000
92	김민영	80,000
58	박무영	50,000
59	김청조	50,000
59	박희문	50,000
59	황성창	50,000
61	박대훈	50,000
61	여상화	50,000
62	이송환	50,000
63	이갑용	50,000
66	김철수	50,000
66	이창근	50,000
67	조영정	50,000
68	김용택	50,000
69	이종훈	50,000
69	임영환	50,000
70	이희태	50,000
총 액		458,010,000

학 번	성 명	금 액
70	유춘재	50,000
70	강성호	50,000
74	이두현	50,000
76	문창하	50,000
76	이상준	50,000
79	최진영	50,000
81	박영기	50,000
82	김상봉	50,000
93	백향희	50,000
58	김성도	30,000
58	윤우용	30,000
62	김도열	30,000
67	조상현	30,000
69	이군섭	30,000
69	이흥기	30,000
70	오태원	30,000
70	정홍준	30,000
71	정영준	30,000
71	허성호	30,000
82	문진복	30,000
84	임성호	30,000
	이훈석	30,000
	미상	160,000
총 액		25,200,000

2. 기별장학기금 조성내역

학 번	성 명	금 액
55	동기회	500,000
56	동기회	1,000,000
57	동기회	1,000,000
58	동기회	1,000,000
59	동기회	1,000,000
60	동기회	1,000,000
61	동기회	1,000,000
63	동기회	2,000,000
64	동기회	2,000,000
65	동기회	1,000,000

학 번	성 명	금 액
66	동기회	500,000
67	동기회	500,000
68	동기회	500,000
69	동기회	4,200,000
70	동기회	2,500,000
71	동기회	500,000
72	동기회	500,000
74	동기회	500,000
75	동기회	2,000,000
76	동기회	3,000,000
총 액		25,200,000

감사합니다!

화학공학과 동문회의 숙원사업이었던 장학재단이

많은 동문들의 모교와 후배를 생각하는 뜨거운 열정과 관심으로

재단법인 문창화공장학회라는 이름으로 출발한지 벌써 9년이 지났습니다.

설립 이후 현재 5억 원의 장학기금이 조성되었으며 1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역대 회장단을 위시한 몇몇 동문들의 큰 기여가

재단설립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만 이제부터는

동문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정성어린 관심과 애정으로

성장하는 장학재단이 되어야 명실상부한 화학공학과 동문회의 장학재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하여 동봉된 지로용지에 금액을

3만원, 5만원의 두 종류로 표기하였습니다.

하나를 선택하여 참여하여 주십시오.

또는 아래계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동문 여러분의 장학재단에 대한

끊임없는 애정과 동참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장학금 기탁 계좌

- 농협 948-01-125980
- 예금주: 재) 문창화공장학회

